

Awana Family

신나는 게임 !! 생명의 말씀 !! 행복한 나눔 !!
춘천 중앙교회 박애연 선생님, 최은수 학생

아이들의 우렁찬 소리와 함께 지하 작은 기도실에서는 토요일 오후 2시면 한마음이 된 교사와 아이들의 합성과 성경 암송 소리는 우리 큰 교회를 사로 잡는다. 자녀를 키우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유혹되기 쉽고, 때론 넘어지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위로 받음을 통해 무엇보다도 말씀이 중요함을 깨달으며 어와나의 시간은 나의 생활에 깊게 젖어 들어왔다.

현재 어와나 2년차 교사로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게임도 하고 성경암송을 한다. 난 불티단 노랑팀 교사, 아들은 T&T 빨강팀 선수 빨강팀 아들 등장, 노랑팀의 우리 선수도 등장 정말 짧은 순간이지만 긴박감과 긴장감이 오고간다. 처음에는 아들 쪽으로 마음이 향하지만 이것도 잠시 나는 어느새 노랑팀!! 노랑팀!! 하면서 노랑팀 승리의 파이팅을 외친다. 아들의 엄마이기 전에 난 노랑팀의 교사다. 이런 나의 모습을 보고 아들은 흐뭇한 표정을 지어준다.

오고가는 말없는 표정과 서로의 무언의 응원 속에 아들과 엄마는 어느새 가족의 정을나눈다. 요즘은 자녀들은 무슨 무슨 학원에 부모들은 또 나를 자녀의 뒷바라지를 위해 여기 저기 동분서주 한다.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가족이 하나되어 응원하는 마음과 시간은 얼마나 될까?

교회에도 연령층별로 다양한 모임은 있지만 가족이 함께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유하며, 게임을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유일한 프로그램인 것 같다.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어와나 그랑프리 대회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등 모든 친척들이 초청되어 하나된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이 얼마나 값진 선물인가? 점차 가족의 기능이 많이 약화되는 이 시기에 나와 아들처럼 작은 모델의 불꽃이 되어 활활 타오르기를 바란다.

또한 춘천에서는 우리교회가 유일하게 어와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점차 교회로 확대되어 개인으로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으로 설 뿐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함께 하는 어와나 속에 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작은 두손을 모아 기도한다.

노랑팀 엄마 : 박애연 간사
빨강팀 아들 : 최은수 학생



Exciting game!! Words of Life !! Happy Sharing!!

Leaders and kids' Big shouts and reciting sounds at the small prayer room fill the big church at 2 p.m. on Saturdays. When I sometimes feel discouraged growing up my children or working at my office, I become restored with God's words and realize the importance of His Words. Thus, the times spent with Awana has had a deep influence on my life.

This is my second year of Awana leader and I play games and recite the scriptures with my 4th grader son. I belong to yellow team, and my son is a T&T red team player. Now it's my son's turn at red team. My yellow team player is ready for his turn.

It's a really brief moment with excitement and stress. At first I pay attention to my son, but in a moment I find myself cheering on my yellow team unconsciously. I am a yellow team leader above my son's mom. My son is pleased with my attitude and smiles at me.

Mother and son give and take affection of a family with silent encouragement speaking nothing.

Today children are busy attending extra classes at several academies after school and parents are also busy taking care of their children. I'm wondering that though they seem to care about each other, how much time a family spend encouraging among others in unity.

There are different meetings for different ages in a church. However, I think Awana is an unique program in which a family can participate sharing God's words and playing games together. Not only parents and kids but also grandparents and other relatives were invited to the Awana Grand Pris contest.

What a precious gift! These days the function of a family is becoming weaker and weaker. I wish the experience my son and I have with Awana will be a little flame as a model and become glowing brightly.

I hope and pray that Awana program that only my church enjoys now in Chun-chon will expand to other churches so that individuals can stand as approved workmen before God and a great work can be attained in Awana with families in unity.

mother : Ae-yon, Park, Yellow team leader
son : Eun-soo, Choi, T & T Red team clubber